

천리마시대문학발전을 추동한 평론계에서의 리론투쟁과 론쟁

김 려 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론가들속에서 리론투쟁과 론쟁을 적극 조직할 필요가 있다. 론쟁이 없이는 평론계가 활발해질수 없으며 문학사업이 활기를 띌수 없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50페이지)

평론가들속에서 리론투쟁과 론쟁을 활발히 벌리는것은 문학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평론가들의 리론투쟁과 론쟁은 문학창작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집체적힘에 의하여 풀어나가게 하는데서 위력한 공간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천리마시대 평론분야에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로 작가동맹에서는 당적인 지도밑에 각종 토론회와 《조선문학》잡지, 《문학신문》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가치있는 론쟁문제들을 제시하고 평론가들과 작가들을 그 마당에 적극 인입시키며 이 과정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조직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시대 평론계에서의 리론투쟁과 론쟁은 지상토론과 연단, 합평회와 평론창작 등 여러가지 형식과 경로를 통해 활발히 벌어져 문학운동에 적극 기여하였다.

당시 평론계에서는 문단과 학계에서 논의가 분분하였던 창작방법과 사조문제 특히 우리 나라에서 사실주의와 랑만주의, 비판적사실주의의 발생문제와 같은 리론적인 문제들을 정책적립장에서 해설론증한 평론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박종식의 평론들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랑만주의문학의 전통과 혁명적랑만성》(1960), 《우리 나라에서 비판적사실주의의 발생》(1959), 《우리 나라에서 사실주의창작방법의 확립에 이르기까지》(1960)와 김하명의 평론 《평론의 선도성과 전투성에 대하여》(1959), 《문학평론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1959) 등은 우리 나라에서 사실주의와 랑만주의, 비판적사실주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발생발전과 그 특성에 대한 문제를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글들로서 문단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현대수정주의의 반동성과 남조선반동문학의 정체를 밝혀내는 평론들이 활발히 창작되어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옹호하고 주체문학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였다.

《전인류적인것》을 들고나온 현대수정주의리론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고 그것이 우리 문학내부에도 스며들었다고 하면서 김창석의 《미학개론》과 작품 《소문없이 큰일했네》를 분석비판한 김하명의 평론들인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전인류적인것〉을 반대하여》(1963), 《〈미학개론〉과 〈소문없이 큰일했네〉에서 발로된 그릇된 견해를 반대하여》(1962), 강능수의 《전형성을 옹호하여》(1963), 리상태의 《세계관과 창작방법에 대한 수정주의적견해를 반대하여》(1964)와 《〈전인류적인것〉에 대한 수정주의적견해를 배격한다》(1962), 강성만의 《수정주의적〈희극리론〉을 반대하여》(1962), 최일룡의 《사회주의적인도주의를 옹호하여》(1964), 박

종식의 《창작방법과 문체》(1962), 안함광의 《예술적전형에 대한 수정주의적견해를 배경한다》(1962)는 전형창조에서 계급성을 부인하는 현대수정주의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폭로규탄한 대표적인 평론들이다. 그리고 《노예문학과 반항의 문학》(박종식 1958), 《남조선문학의 최근 동태》(김해균 1964) 등 남조선의 문학계에서 범람하고있는 각종 부르조아반동문학조류들을 리론적으로 폭로단죄한 평론들도 적지 않게 창작발표되었다.

이 시기 평론계에서는 주체54(196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개 호도 빠짐없이 《혁명적작품창작을 위한 지상연단》이 조직되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로 작가들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지상연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3(1964)년 11월 7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평론 《조국통일주제작품에 대한 생각》(강창호 1965. 1), 《조국해방전쟁을 반영한 작품창작을 위하여》(방연승 1965. 2), 《혁명적대작과 장편소설에서의 예술적일반화문제》(리상태 1965. 2), 《혁명적대작과 주제》(리억일 1965. 3), 《혁명적성격창조와 정황의 문제》(안함광 1965. 4), 《혁명적주제의 탐구와 주제 영역의 확대》(연장렬 1965. 4), 《혁명적대작의 구성문제 몇가지》(박영근 1965. 5), 《혁명적대작과 구성》(최일룡 1965. 6), 《조국통일주제와 형상성》(최창섭 1965. 7), 《혁명적대작과 줄거리문제》(안함광 1965. 8), 《혁명적인 대작과 주제의 탐구》(천청송 1965. 9), 《혁명적대작과 구성의 기교》(엄호석 1965. 11-12), 《중심주인공과 구성》(방연승 1965. 11-12) 등을 비롯하여 혁명적작품과 혁명적대작에 관한 평론들이 매 호에 3~4건이상 실리었다.

그 다음해인 주체55(1966)년에도 혁명적작품과 혁명적대작창작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되었다.

이 시기 평론계에서는 지상연단을 통하여 문학형태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벌어졌다.

소설의 양식상특성을 논한 평론들이 제일 많이 창작되었는데 실례로 《조선문학》주체51(1962)년 7월호에 《소설문학에 대한 단상》이라는 표제아래 《문학의 심장 인간을 알자》(백철수), 《다양성, 독창성》(리춘진), 《개성화의 매력》(리근영), 《재미있는 소설이란》(김병훈) 등 소설가들의 견해가 실리었다면 주체52(1963)년 2월호에는 《단편소설의 매혹의 힘》이라는 표제밑에 《소설에서의 흥미》(석인해), 《밤을 밝혀가며 읽은 소설들》(석운기), 《소설의 매혹은 성격인가 사건인가》(최창섭), 《흥미에 대한 소론》(권정웅) 등 여러 소설가들과 평론가들의 견해가 실리었다.

이외에도 《조선문학》에는 윤세중의 단상 《단편의 다양한 형식》(1965.1), 리석형의 《단편의 형식을 두고》(1965.2) 등 단편소설형식을 논한 평론들과 《장편소설의 특성과 그 미학적요구》(엄호석 1964), 《장편소설은 몇개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지는가》(석운기 1962), 《장편소설의 구성상문제》(안함광 1963) 등 장편소설의 형태적특성을 논한 평론들도 실리었다.

서정시, 장시, 서사시 등 시형식과 실화문학, 평론에 대한 논의도 적지 않게 벌어졌다.

《서정시와 일반화의 특성》(강성만 1964), 《시적열정과 시형식》(리수립 1964), 《서사시의 형상창조의 특성》(강성만 1963), 《실화문학에 대한 생각》(최일룡 1961), 《평론의 선도성과 전투성에 대하여》(김하명 1959), 《문학평론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김하명 1959), 《평

론에 대한 소감》(한고갑 1964) 등의 평론들에서는 시형식의 특성을 살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특히 《시적열정과 시형식》은 시단에서 많이 논의되고있던 장시에 대한 이해를 주는데서 매우 의의있는 평론이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평론의 선도성을 높일데 대한 김하명의 평론은 이 시기 작가들과 평론가들을 리론실천적으로 깨우치는데서 문제성을 띠고있는 평론이다.

이외 분과별합평회와 독자모임, 창작휴양작가들의 좌담회형식의 연단들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실례로 《조선문학》주체53(1964)년 10호에 실린 창작휴양작가들의 좌담회에서 논의된 혁명적대작창작과 예술적기량에 관한 문제,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단편소설과 인간문제들을 들수 있다.

평론가 강능수와 소설가들인 황건, 박효준은 혁명적대작창작에서 기록주의적이며 도식적인 경향을 극복하자면 작가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창작적기량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토론하였고 평론가 엄호석과 시인 정문향은 시가 시대정신에 이르기까지 승화되지 못한 문제를 들고나왔으며 여러 평론가, 소설가들뿐아니라 시인 김조규까지도 소설에서 시적인 랑만, 희열에 넘친 시대의 주인공을 그려낼데 대한 문제와 함께 성과작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령북땅》,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와 같이 새로 나온 단편소설들이 너무 길어지는 편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시기 평론계에서는 현실주제작품들에 대한 평가와 갈등문제에서 논쟁이 활발히 벌어져 문학운동이 활기를 띠었다.

현실주제작품들의 평가에서 논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그 대표적인것의 하나가 하정희의 단편소설 《생활》(1962)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들수 있다. 이 작품은 나오자마자 전문작가들과 평론가, 독자들속에서 반향이 컸다. 긍정적으로 대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와 상반되는 견해도 많았다.

단편소설 《생활》은 어느 한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는 영옥이가 등교수업차로 언니 순옥이네 집에 와있는 동안에 벌어진 이야기로서 결혼과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자매의 서로 다른 견해와 그로부터 출발하는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에 대한 문제를 생활적으로 해명하고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영옥이는 녀자의 생활이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잘 꾸리면 된다는 언니 순옥이의 낡은 생활관에 대하여 이모저모에서 체험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언니를 깨우치며 결국 사랑도 가정도 행복도 로동속에서, 천리마시대의 벽찬 생활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참된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는 인물이다.

윤시철은 평론 《〈생활〉에 대한 논의와 소설의 기교》에서 《…단편소설 〈생활〉은 발표 이후 오늘까지 평론가와 작가들, 독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다싶이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시대와 역사를 포괄하는 장편소설이 아닌 한 단편소설을 가지고 이렇듯 광범한 필자들에 의하여 논쟁적으로 논의된적이 있었던가, 그러면 〈생활〉이 이와 같이 큰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서는 광범히 논의되었으나 충분한 명확성으로 확증된것은 아니다. 문제의 복잡성은 찬양의 빠포스와 함께 그와 전혀 다른 논조의 비판적의견 또한 적지 않게 제기되고있다는데 있다. 보다 더 많이 작품의 긍정성을 찾고있는 론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동일한것처럼 보다 더 많이 비판적의견을 제기하는 론거 또

한 대체로 동일하다. 한 작품에 대하여 한편은 전면적인 찬양으로, 한편은 보다 더 많이 비판으로서 대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공통적인 견해들도 있는바 그것은 작가가 제기하고있는 주제가 참신하다는 점이며 절박한 사회적문제성을 제시하고있으나 생활적진실-생활의 논리와는 상반되게 묘사되었다는 점이며 주제해명을 주로 논리와 개념에 의거한 반면에 예술적형상으로써 무르익히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다. ...》라고 하면서 《생활》과 관련하여 심중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독자들, 평론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실은 교훈적이라고 하였으며 이 작품에서 성격적대립이 명료한 갈등에 기초한것, 결혼, 가정의 붕괴와 같은 사회적관심이 높은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한것 등을 긍정하고있다.((조선문학》1963.4)

평론은 이 소설에 대한 각이한 견해들을 밝힌 평론가와 소설가들의 견해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일반화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힌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공부정평가 내용을 이해할수 있게 하며 동시에 부정보다 긍정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사를 주고있다.

엄호석의 평론 《성격의 논리와 사실주의적탐구정신》((조선문학》1962. 9)과 안함광의 평론 《우리 단편소설의 사상적지향과 미학적특성》((조선문학》1963. 4)을 비롯하여 이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거는 생활의 본질에로 침투하여 그속에서 새것을 발견하는 사실주의적탐구정신을 보여주고있으며 높은 미학적리상과 혁명적량만성을 잘 구현하였다는 것이다. 즉 《생활》은 형상성이 높은 작품의 하나로서 세태적인것과 사회적인것의 호상관계 문제에 훌륭한 해답을 주었으며 붕괴주제의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있을뿐아니라 형상성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긍정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크게 보고 이 작품을 실패작으로 본 견해도 강했다. 소설가 황건은 평론 《소설가의 립장에서》((조선문학》1962. 12)와 평론 《소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조선문학》1963. 2) 등에서 《생활》의 근본결함은 생활을 력설하면서 생활의 진실, 그 논리성과 합법칙성을 무시하고있다는데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하였으며 최창섭은 단상 《체험적사고》((조선문학》1962. 12)에서 《생활》은 작가가 요강식으로 소설을 구성했다고 했고 평론가 박종식은 《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1963)에서 소설 《생활》은 개념이 앞서고 형상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있으며 작가의 의도는 있으나 영옥의 형상은 감동적인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생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평자들의 견해에서 공통적인것은 도식과 기록주의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논리적인 개념으로 작가의 의도를 로출시키고 형상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는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일부 독자들과 평론가들이 그 작품을 극구 찬양하고있다는것이라고, 이것은 작품전체의 사상에술적성과나 공감을 떠나서 그 내용과 작가의 의도만을 보며 그 문제성에만 현혹되어 만세를 불러온 일부 습성된 관점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도식주의는 필경 이렇게 양육되어있다고 강경하게 주장해나선것이다.

공부정견해가 각기 자기의 논거가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미흡한것은 있을수 있지만 결국 천리마시대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문제성으로 하여 사람들을 공감시킨 그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는데서 의견일치를 보았고 결국 단편소설 《생활》은 《조선단편집》에 당당히 실리게 되었다.

이러한 실례는 리병수의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독특한 양상

으로 천리마시대인간들의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정서를 안겨준 이 소설은 처음 나왔을 때 역시 찬성과 반대의 견해로 하여 물망에 오르고 평론가와 소설가들이 참가한 합평회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어쨌든 소설은 기성관념과 도식화된 견해에는 맞지 않아도 읽고나면 감동적이고 여운이 있었던것만은 사실이다.

소설가 최명익의 옥류관 국수맛이야기라는 일화도 그때 이 소설과 관련하여 나왔다. 최명익이 옥류관 국수는 먼저 먹어보고 그 맛을 평가해야 하지 않는가, 먹어보기도 전에 저가락으로 고명이며 꾸미를 헤집어보면서 시비해서야 필요가 있는가, 이 소설도 읽어보고 그 맛을 평가해야 한다는것이다. 이 소설의 맛은 다 좋다고 하니 그 맛이 왜 좋은가 하는것을 론하면 된다는것이였다.

결국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은 맛이 좋은 소설로 평가되어 역시 《조선단편집》에 올랐고 천리마시대 현실주제작품의 대표작으로 되였다.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에 대한 분석평가는 평론 《주제와 구성의 힘》(길수암 1965.7)에서 충분한 납득을 주고있다.

현실주제작품 특히 극문학작품에서의 갈등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활발히 벌어지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문학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극문학을 비롯한 현실주제문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심각한 리론실천적문제였다.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근로자로 되었고 긍정적인것과 아름다운것이 사회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천리마기수, 천리마시대영웅들의 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모든 근로자들은 그들의 숨결에 자기들을 따라세우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통일단결된 천리마시대 현실은 계급투쟁의 새로운 성격과 함께 갈등에 관한 새로운 리론을 요구하였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것이 기본을 이루고 낡고 부정적인것이 부차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주의현실, 천리마시대는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에서도 종래의 도식적인 개념과 리론에서 벗어날것을 요구하였다.

창작실천을 보면 천리마시대의 현실에서 긍정적인것만을 반영한 작품도 쓸수 있고 새것과 낡은것 즉 현실에 있는 긍정적이고 모범적인것과 부정적이고 락후한것도 그리게 된다. 문제는 이 모든것이 종래의 극적충돌문제, 예술적갈등과 그 표현문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해결될수 없는 심각한 리론적문제, 미학실천적문제였다는데 있다.

이 시기 평론에서는 천리마시대현실을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갈등을 옳게 설정해결하며 부정인물의 특성을 잘 형상할데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였다.

《극적갈등문제》(리령 1963), 《〈붉은 선동원〉의 몇가지 사상미학적특성》(강진 1963),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세계와 창작기교》(엄호석 1964), 《우리 문학에서의 갈등의 특징에 대한 의견》(리상태 1964) 등 여러 평론들에서는 희곡 《붉은 선동원》과 경희극 《산울림》을 비롯한 극문학작품들에서 갈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해결한 성과에 대하여 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론쟁이 아니라 일치하게 그 성과를 미학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

당시 평론들에서 정확히 분석한것처럼 희곡 《붉은 선동원》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을 설정하고 해결하는데서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다.

희곡은 천리마시대의 부정의 성격을 옳게 규정하고 그 부정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다시말하여 긍정적력량이 장성강화되는 과정으로 갈등을 설정하고 해결해나갔다.

희곡에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자 리복선, 농촌전달군 최관필, 리기주의자 최진오 등으로 이루어지는 세 갈래의 극적갈등이 설정되어있다. 이 갈등은 순차적으로, 편쇄적으로 해결되고 먼저 개조된 인물이 다음인물의 교양개조에 참가하여 주인공을 적극 도와나서는 특성을 띠고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것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긍정에 의해 부정이 감화 극복되며 인간개조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된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예술적으로 뚜렷이 확증한 의의있는 형상수법이다. 즉 얼핏 보기에 수차적으로 많은듯 한 부정선은 긍정에 의하여 부단히 극복되는 과정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긍정선은 점차 확대강화되어 마침내는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발전과정으로 작품이 구성되어있다.

평론들에서는 작품의 극적충돌의 다양성과 갈등의 심오성 다시말하여 점차 약화되면서 끝내 극복되고야마는 부정선과 점차 확대강화되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서는 긍정선간의 갈등을 더욱 예리화함으로써 천리마시대현실을 전형화하고있는 여기에 갈등의 첫째가는 특성이 있으며 개조된 부정이 다른 인물개조에 또 참가하는 여기에 다른 또 하나의 특성이 있음을 밝히고있다.

희곡 《붉은 선동원》에서 갈등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주의현실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력으로 사회주의대진군길에 뻗어나선 우리 사회의 면모를 뚜렷이 확증한것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갈등에 대한 주되는 논의는 갈등이 형상창조에서 필수적이라는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하여 제기된 논쟁들이었다.

여기서 하나는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긍정적인물들의 생활만을 그릴수 있다는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경우에도 갈등은 철저히 있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이 경우 갈등은 좋은것과 더 좋은것, 긍정적인것과 더 긍정적인것간의 관계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첫 경우 즉 아름다운 생활, 긍정적인 인물들만 그린다는것을 부정하면서 작품에는 반드시 새것과 낡은것간의 갈등, 긍정과 부정간의 갈등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없이는 작품 특히 극문학작품은 창작될수 없다는것이였다.

이러한 서로 다른 견해들은 심각한 논쟁거리로 되었으며 결국 출판물들에는 논쟁적인 평론들이 실리게 되었다.

실례로 단막희곡 《즐거운 일터》(《문학신문》 1960. 12. 23)를 둘러싸고 《문학신문》에서 갈등에 관한 논의가 벌어진 사실을 들수 있다.

예술적갈등과 관련하여 논쟁적인 성격을 띤 평론들을 보면 《긍정적모범의 창조와 갈등문제》(안함광 1961. 1. 27), 《하나의 전형으로 수많은 새 인간들을 길러내자》(엄호석 1961. 1. 19), 《극장르에서의 성격창조와 갈등문제》(한형원 1961. 2. 7), 《생활과 갈등의 문제》(로금석 1961. 2. 25), 《갈등은 언제나 긍정과 부정과의 투쟁이다》(신고송 1961. 3. 14), 《생활의 진실과 갈등》(신고송 1961. 5. 26) 등을 들수 있다.

희곡은 흥남비료공장에서 있는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은 주체 49(1960)년 직장앞에 맡겨진 년간계획을 8.15전으로 끝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내용을 담

고있다. 8.15전으로 년간계획을 끝내는 데서 기본고리의 하나가 가열로를 보수하는 문제였는데 이 과업을 맡은 작업반성원들은 일요일에 그 일을 해제끼기로 결심하고 모두 그날에 공장에 출근하였다. 그런데 다른 작업반에서도 스스로 가열로보수를 자기들이 맡아하겠다고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 공장으로 나왔다. 결국 두 작업반성원들은 힘을 합쳐 일요일에 가열로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여기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살며 투쟁하는 천리마시대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에 기초한 헌신적로력투쟁의 참모습이 감동적인 화폭으로 반영되어있다. 회화는 비록 길지 않았지만 천리마시대의 현실에 대한 진실하고도 감명깊은 화폭인것으로 하여 독자들과 우리 문단에 강한 정서적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작품은 문학리론분야와 창작실천적인 견지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그것은 바로 이 작품에 갈등이 설정되어있지 않은것이였다. 작품에는 아름다운 인간들과 그들의 창조적이며 보람찬 로동생활만이 반영되어있고 인물관계에서도 긍정인물관계만 설정되어있었다. 그러다나니 문학작품 특히 회화와 같은 극작품에서는 예술적갈등을 잘 조성하는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던 기성리론에 도무지 들어맞지 않았던것이다.

하지만 작품은 비록 갈등이 설정되어있지 않았어도 독자들은 물론 창작가들속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커다란 관심속에 공연되였다. 문제는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되였다.

회화 《즐거운 일터》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결국 갈등에 관한 심각한 리론적문제, 창작실천적문제로 전환되게 되었던것이다.

평론가들속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논의가 결국 예술적갈등에 대한 문제에 귀착되어 제 나름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견해는 하나로 일치하였는바 다같이 예술적갈등은 반드시 작품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논의를 진행한것이였다. 갈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동일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또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이 작품에 대한 평가에서 두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천리마시대의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는 긍정적인 평을 주면서 그렇게 된 비결은 바로 작품에서의 갈등을 이전처럼 긍정과 부정과의 갈등으로 설정한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물들속에서 좋은것과 더 좋은것과의 갈등으로 새롭게 설정한데 있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일요일에 가열로보수작업을 하게 된 작업반도 긍정적이지만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가한 2작업반은 1작업반보다 더 긍정적인 작업반이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 작품이 극성이 미약하고 미담에 그친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하면서 그 원인을 작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충돌, 긍정과 부정간의 갈등이 없기때문이라고 한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가지 견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그와 관련한 평론들을 한번 분석해보기로 하자.

평론 《긍정적모범의 창조와 갈등문제》에서는 이 작품이 창조적로동에 헌신하는 천리마기수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질을 훌륭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우리 시대에 긍정적모범이 벌써 온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현상으로 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다고 하였다.

평론 《하나의 전형으로 수많은 새 인간들을 길러내자》에서는 문학에서 갈등은 반드시 긍정적인물과 부정적인물과의 성격적충돌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긍정인물들간에도 갈

등을 조성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 경우에는 이 작품에서처럼 새것과 낡은것의 한 형태인 나은것과 보다 나은것과의 투쟁으로 하면 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런가 하면 평론 《극장르에서의 성격창조와 갈등문제》에서는 긍정적인것과 더 긍정적인것간의 갈등을 주장하는 견해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것은 단막희곡 《즐거운 일터》를 통해 알수 있다고 하였다.

평론에서는 이 작품이 확실히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이 작품을 보면 우리가 기성관념으로 알고있는 갈등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고 즉 새것과 낡은것과의 그러한 갈등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갈등이 없이도 희곡이 창작될수 있다는 견해를 가질수도 있게 하는데 그러나 평자는 여기에 갈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갈등은 바로 긍정적인것과 더 긍정적인것과의 갈등에서 표현되었다고 강조하고싶다고 하였다.

이 평론은 갈등이 없이도 극작품이 창작된 그자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아무래도 그것은 극작품창작에서 갈등이 필수적이라는 기성견해에 맞지 않는것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틀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시도했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희곡 《즐거운 일터》를 긍정적으로 평한 글들은 이 작품이 종래의 기성관념으로서의 갈등은 없다는것을 인정한 기초우에서 갈등에 대한 제나름의 《새로운》 견해를 내놓은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자들이 제기한 견해처럼 좋은것과 더 좋은것, 긍정적인것과 더 긍정적인것간의 갈등인것이다.

이것은 갈등이 필수적이라는 기성리론에 기초한것으로서 긍정과 부정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긍정인물들사이에든 새것과 낡은것과의 갈등이 있을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는 리론이라고 할수 있다.

희곡 《즐거운 일터》에 갈등이 없다고 한 평론들을 본다면 《생활과 갈등의 문제》를 들수 있다. 이 평론에서는 갈등이 그 어떤 형태의 문학작품에서든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희곡 《즐거운 일터》에서는 완전히 갈등을 무시하였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작품은 공감 이 가지 않는다고 피력하였다. 평자는 이 작품에서는 극적인 주인공, 극적인 사건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 이 작품이 심각성, 극성을 안겨주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작가가 갈등을 기초로 삼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든 갈등이 없이는 극문학도 있을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평론 《갈등은 언제나 긍정과 부정간의 투쟁이다》에서는 이 희곡은 하나의 미담으로 갈등을 줄수도 있지만 거기에 담긴 갈등은 극적으로 보장된 갈등인것이 아니라 인위적갈등이라고 하면서 극작품에서는 갈등이 언제나 결정적의의를 가지며 그 갈등은 언제나 긍정과 부정간의 투쟁이라고 강조하였다.

평론 《생활의 진실과 갈등》에서는 희곡 《즐거운 일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희곡이 아니라고, 극에는 대립되는 세력들간의 충돌과 배척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 작품을 희곡이라고 명명한 그자체에 잘못이 있다고까지 하였다.

희곡 《즐거운 일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러한 평론들은 이 작품에 갈등이 없다는것을 인정한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것 즉 갈등이 없기때문에 극이 성공하지 못했고 극이 될수 없다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좋은것과 더 좋은것간의 갈등을 반박, 부정하는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현실의 극적반영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이 작품의 감화력, 진실성까지 외면하고 긍정과 부정과의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것을 주장한 그릇된 견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희곡 《즐거운 일터》에 대한 평론들은 그것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다 같이 비록 서로 다른 견해를 제기하고있어도 그 기초에는 공통적인것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작품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기성관념인것이다.

평론들은 당시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서 예술적갈등에 대한 리해가 중요한 미학 실천적문제로 제기되고있었으며 정확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갑론을박하면서 론쟁에 머물고있었다는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오늘 갈등이 없이도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주체적문예리론으로 무장한 우리들에게는 이런 론의가 있었다는 그자체가 놀랍게 생각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하여도 문단에서는 이러한 론의가 빈번히 물의를 일으키고있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혀주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53(1964)년 1월 8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 예술작품에서의 갈등문제에 대하여》에서 부정이 없이도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명철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미학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시여 갈등이 없이도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며 극조직에서 기본은 감정조직이라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내놓으시였다.

이처럼 이 시기 갈등문제에 대한 론의가 시대적요구에 맞게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새로운 미학실천적문제들이 제기되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완벽하게 해명되었으며 그것이 창작실천상에 그대로 구현되어 갈등설정과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었다.

천리마시대 평론가들의 리론투쟁과 론쟁은 문학예술을 시대와 문학예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작하도록 선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오늘 우리 시대의 평론가들은 전세대평론가들처럼 만리마속도창조자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화한 명작창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무게있고 현실성있는 평론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 주체문학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천리마시대, 리론투쟁